탄소배출 줄인다며 되레 환경 훼손 '논란'

태양광·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수망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녹지 훼손 문제 대두 추자 해상풍력, 주민갈등・공공자원 사유화 잡음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친환경에너지 발전시설 사 업들이 최근 잇따라 추진 중인 가 운데, 되레 환경 훼손 우려를 불러 일으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논란이 대두되는 사업은 서 귀포시 수망리 태양광발전시설 조 성사업과 추자 해상풍력발전사업 이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 수망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은 제이 원주식회사가 서귀포시 남원읍 수 망리 233만7352㎡ 부지에 100MW 규 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1391억원이 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다.

시설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준공 이 완료될 경우 도내 태양광발전시

설 용량은 총 650MW로 늘어난다.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자 환경훼 손 우려가 터져나왔다.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고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 이란 주장이다. 제주녹색당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 지구에는 지하수 자원보전과 생태계보전, 경관보전 지구 등이 분포되어 있는 데다 멸 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고. 수만 그루의 녹지를 훼손해야 한다.

도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 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이 설비 용량은 도내 태양광발전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

기됐다.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은 지난달 3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해 제주도의회 동의,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추자도 앞바다에 건설이 추진되 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을 둘러싼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노르웨이 국영 석유・ 천연가스회사의 한국 법인인 에퀴 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주)과 국내 특수목적법인 추진 등 2곳이 추자 도 동·서쪽 해역에 각 1500mW씩 총 30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는 도내 최대로 계획된 구좌 앞바다 105mW보다 30배에 가까이 큰 규모로, 총 사업비만 17조원으 로 추산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400km에 이르는 면적에 높이 260m의 해상풍력발전기 360개가 세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추자

주민 간 갈등에 이어 공공자원 사 유화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은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주에선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 민간 이 주도함에 따라 제주특별법 사문 화 우려까지 제기됐다. 해당 사업 의 공유수면 점사용 등 인·허가 권 한을 지닌 지자체가 어디인지에 대 한 논란도 진행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해상에서 풍력발전사 업을 할 경우 제주도지사에 권한이 인양되고, 도지사 소속 풍력발전심 의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 치게 된다"며 "다만 이 사업의 경 우 생산된 전력이 육지부로 공급될 예정인 만큼 아직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 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2022제주 생명수를 지키자 (5)수자원 추진 전략과 효과(상)

용도 아닌 지하수 등급별 수질관리를

지하수법 수질관리는 제주도 실정과 부합 기후변화 상황 대비 염지하수 담수화 필요

제주의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는 유역별 수질관리 기준 설정 등 수질 등급별 관리가 시급하다.

제주지하수의 주 오염원은 화학 비료가 58%, 가축분뇨 34%, 개인하 수처리시설 방류수가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 4586공 중 2605공 (57%)이 90년대 이전에 개발된 노 후시설이어서 이로 인한 지하수 오 역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

그러나 현재의 지하수 수질관리 는 지하수법에 의한 용도별 수질관 리 체계로 제주도의 실정과 맞지 않다. 즉, 지하에 부존하는 지하수 는 모두 같은 수원이지만 지하수를 이용하는 용도(먹는 물, 생활용, 농 업용, 공업용 등)에 따라 수질기준 이 다르다

이에 따라 같은 지점에서 개발한 지하수라도 용도에 따라 수질기준 이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어느 한 지점에서 개발된 2개의 지하수 중 한 개는 먹는물용, 한 개는 농업용일 경우 먹는물용 지하수는 질산성질소 수질기준이 10mg/L이므로 질산성질소 농도가 15mg/L인 경우에는 오염된 지하수 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농업용 지하수인 경우에는 농업용 수질기준이 20mg/L 이므로 15mg/L 인 지하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좀 더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도 전역의 지하수 수질을 단일화한 수질기준에 따라 평가해 수질등급 별로 구분하고 수질등급별 관리목 표를 설정해 관리하는 수질등급별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3개월 이상 이어지는 극단적인 가뭄 등에 대비한 염지하수 담수화 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길었던 가뭄은 2013년 6 ~ 8월 59일 가뭄과 2017년 8 ~ 9월 53일 가뭄이다.

이때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물 공급 부족으로 인해 어승생 정수장 (Y계곡 취수원) 급수구역인 중산 간지역 일부 마을에 제한급수를 실 시했다. 1개월만 더 비가 내리지 않 았다면 지하수 취수를 중단해야 하 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최근 제주도의 기후는 기후변화 가 가시화되면서 가뭄과 폭우가 빈 번한 전형적인 아열대 기후로 변화 하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 반복되며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물 공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 와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물은 염지하수 담수화 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제주도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에 1일 2만5000㎡ 규모의 염지하수 담수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 하고 있다. 고대로기자

오염물질 불법배출 특별감시 제주시, 추석 연휴까지 진행

제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특별 감시활동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 대상 사업장은 공 장 밀집지역, 하천 주변 폐수배출 시설, 악취관리지역 농가,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 170개소에 이른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환경오염물 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연휴 대비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 자율점검을 유도 하고 있다. 이어 첨단감시장비인 드론과 유해대기측정차량을 활용 해 사업장 주변을 예찰하고 의심 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중점 관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휴 동안 자체 상황 실(연락처 728-3131~3)을 운영해 이 기간에 발생하는 오염행위 신고 에 대해서도 즉시 조치한다는 방침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속속 피항하는 어선들 태풍 '한남노' 가 제주도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4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 어선들이 대피해 있다.

친환경양식 복합미생물 지원 확대

서귀포시, 어가 15곳 추가

서귀포시가 양식어류의 면역력 강 화와 사육수 수질 개선을 통한 폐

사율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양식 복

합미생물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원액은 400만원(보조율 60%, 자부 4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1회 추경에서 사 업비 6000만원을 확보, 올해 1월 사 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87 지원했다.

개 어가 가운데 최근 복합미생물 지원 실적이 없는 15곳을 우선적으 로 선정해 지원한다. 어가 1곳당 지 담 40%)이다.

앞서 시는 본예산에서 6000만원 을 확보해 양식어가 15곳을 우선 백금탁기자

추석연휴 공영주차장 무료 서귀포시, 9~12일 나흘간

서귀포시가 추석 연휴인 9~12일 4 일간 지역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에 무료 개방하는 공영주 차장은 정방 공영 등 주차빌딩 6곳 과 자구리 등 노외주차장 13곳, 노

상주차장 3곳 등 모두 22곳이다. 다 만, 매일올레시장 안에 있는 중앙 공영 주차빌딩은 주차장 회전율과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오전 9시부 터 오후 8시까지 유료 운영할 계획 이다.

특히 기존 39면 노외주차장으로 조성됐던 아랑조을거리 주차장이 복층화사업을 통해 139면(3층 4단) 으로 확대, 개방된다. 백금탁기자

(주)부영주택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에서 함께 할 청소년 지도사를 모집 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 내 청소년 들을 위한 시설로 개원 한 ㈜부영주택 제주부영청소년 수련원은 전국 청소년수련 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시설입니다

저희 수련원에서는 청소년들과 함께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해 나갈 역량 있는 청소년 지도사 분들을 모집 합니다.

모집 대상

청소년지도사 자격(2급 또는 3급) 소지자. 2명 청소년 인증 수련활동 프로그램 진행 유경험자 우대 레크리에이션 진행 가능자 우대

주요 업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청소년수련원 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등

주요 복지혜택

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 의료비 지원 계열사(호텔, 리조트 등) 무료 이용 등

지원 방법

수련원 홈페이지 내 당사 입사지원서 양식 작성 및 제출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booyoungyouth.com 공지사항 참조)

문의 및 제출

문의: 064)760-5700 제출: youth@booyoung.co.kr

문의 ㈜부영주택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064)760-5700



